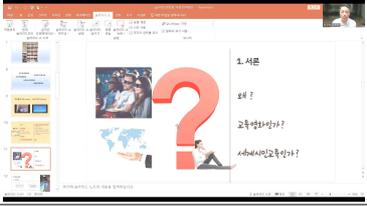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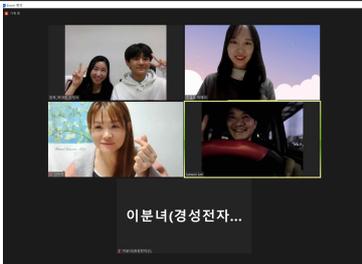


2022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연구회 분과연구모임 결과 보고서

분과연구모임명	Ciné de SDGs (세상의 모든 영화 - Tous Les Films Du Monde, 푸레필름뒤몽드)
대표교사 (소속)	이재원(분포초)
회원교사 (소속)	강정숙(충북 복대중), 안수정(부산 충렬고), 김지연(부산 명지중), 황선혜(세종 한솔초), 박예리(세종 한결초), 빈장원(천안 성환초), 조윤주(원주 원주초), 박영진(안동 부설초), 노성빈(서울 향동중), 이미림(충북 부용초), 이민혁(경북 서라벌초), 유정민(전북 군산금빛초), 김용아(한결초), 김명숙(서울 오산중), 김민정(천안 성신초)

추진 일정	수행 내용	관련 사진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2일 분과 계획서 작성 사전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킹 및 연구회 방향 설정 ○ 4월 25일 분과 첫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서 상의 활동 수정 및 방향 논의 확정 - 활동 종류 및 방향 설정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조율이 어려워 모임 연기 	없음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08일 3차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스브레이킹(영화로 인사하기) - 연구회 예산 사용 계획 확인 - 어린이청소년환경영화제 홍보, 프록시마 프로젝트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13일 4차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릴라 별 감상후 생각나누기 - 빈장원 선생님의 세계시민교육 강의 - 함께 읽을 책 “난민, 세 아이 이야기”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 10일 5차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세 아이 이야기 소감 공유 - 난민관련 영화 - 여성 인권 관련 영화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10일 6차 모임 - 카우스피러시 - 시스피러시, 환경 관련 영화 리뷰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4일 7차 모임 - 나는 보리 김진유 감독님과 대담 - 영화를 통해 장애인식 교육 및 사회 전반에 대한 대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월 4일 8차 모임 - '박강아름 결혼하다'의 감독님 박강아름 감독님과 대담 -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에 대한 대담 - 프랑스의 인권에 대한 대화 ○ 11월 14일 9차 모임 - 지금 배우님 만나러 갑니다. 진행 - 아역배우 김강민 군과 영화 관련 대화와 청소년 이해 교육 및 세계시민 교육 관련 대담 - https://padlet.com/wwfm01/j4h1tl3f7cgv7f5 	 

연구결과물	
산출물 형태	패들렛(회의 결과물) https://padlet.com/apceiu/r7u13qn4ejy131e2 연구물(영화 리스트, 수업안), 영화 감상문
내용 요약 (필요시 사진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회의 기록물 - 교사별 영화 활용 수업안 예정 -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용 영화 리스트 - 난민, 세아이 이야기 독서 - 감독 및 배우님과 대화 기록

연구 소회 및 기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활동에서 영화를 활용한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온라인 활동으로 인하여 교사들의 지속적인 모임이 다소 어려웠으며, 모임의 지속성을 위한 일정 잡거나 부수적인 활동이 부담스러웠음. 또한 최초 희망 인원보다 적극적인 참여 교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적정인원 측정이 필요함. - 실질적인 연구보다 연구 후의 자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했음.

- 온라인 회의의 장점으로 다양한 인물들을 섭외하고 영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고, 배우 및 감독과의 대화는 영화를 좀 더 깊이 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함
- 추후 영화 분야의 다양한 인물들과 네트워킹을 통해 다양한 영화와 교육 현장이 결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함.
- 책과 영화를 결합하는 형태, 일상 생활과 영화를 결합하는 형태 다양한 형태의 분과 활동이 가능하리라 생각함